■ 제주도의회 교육위,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 사태 현안보고

실기평가 점수 교차검증 허점 재확인

"도교육청 중대 과실…개선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속보=제주도교육청이 중등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두 번이나 번복하는 일이 빚어진 것은 성적 처리 과정에서 업무 실수를 잡아낼 검증 작업이 부실(**본보 17일자 1면 '교차 확인에도 실수 못 잡아…검증 한계'**)했기 때문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일을 임용시험 전반의 불신을 키운 '중대 과실'로 지적하며 시험 전반에 대한 개선은 물론 내외부 감사, 교육감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379회 임시회 폐회 중에 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합격자를 번복한 것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제 원인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성적 처리 과정의 업무 실수를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7일과 13일 합격자를 변경해 공고했다.

김장영(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의원은 이날 "학교만 해도 학생이 시험을 본 뒤 재검, 3검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교장이 최종 확인한다"며 교차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고용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실기평가 점수를 나이스(전산시스템)에 옮겨 적을 때는 3검까지 했다"면서도 해당 점수를 합산하는 단계에선 사실상 교차 검증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의원들은 시험 성적처리 과정의 업무 실수를 5회에 걸친 결재 라인에서도 잡아내지 못한 관리의 책임도 꼬집었다.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의원은 "맨 처음 합격 공고를 보니 체육이 다른 과목에 비해 합격 점수가 낮아 일부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드는 데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오승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최종 결재를 하기 전에 실무자를 불러 확인했는데, 특정 과목의 경우 필기 시험 점수가 낮아 합격선이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어쩌면 (그 이상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두 번의 합격자 번복 사태가 임용시험 실기평가 전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키우면서 외부인사를 활용한 평가위원 구성, 실기평가 점수 공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창식(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의원은 "임용시험은 물론 전문직 공채 시험 등 모든 영역의 평가 결과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나 교육부, 감사원에 위임해 감사를 받고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고, 부공남(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의원은 "교육감이 공식 사과해야 하는데 이를 자꾸 늦추고 있다. 중과실인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中유학생 특별수송 3월 중순까지 연장

도 "2월말부터 3월초 유학생 대거 입도 예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특별수송을 국내선 전체로 확대하고, 3월 중순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부로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직항 노선이 임시 중단됨에 따라 다른 지역을 통해 입도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관리하고, 도내 4개 대학이 모두 2주 이상 개강 연기(3월 16일 이후)를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특히 2월말과 3월초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도가 예상됨에 따라 입국 후 14일 동안 머무를 임시 생활시설을 대학들과 함께 파악하는 등 중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도내 대학들은 교육부가 입국 유학생을 '입국 시-입국 후 14일-14일 종료' 단계로 구분해 관리를 강화할 것과 신입생과 편입생의 휴학이 허용되도록 하는 등 대학별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요청함에 따라 2월 말 이후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휴학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는 기숙사를 비롯한 건물 전체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 등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행동요령과 예방수칙들을 개별적으로 안내 중이다.

도는 대학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입도 현황을 사전 파악하고, 입국 시부터 별도 수송 차량을 지원해 기숙사와 숙소까지 유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특별수송 인원은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103명(1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도내 각 대학들은 입도 유학생 전원에 대해 임시 생활시설을 마련해 14일간 임시 생활토록 조치, 상시 모니터링을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학교에 정상 복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성읍리마을 양돈장 시설 허가 철회해야"

주민들 어제 집회… 서귀포시청 조건부허가 비판

서귀포시가 최근 표선면 성읍리에 농업회사법인 A회사의 양돈장 시설을 허가한 것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성읍리 양돈장시설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서귀포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상수도 공급불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양돈장이 가능한 이유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양돈장 시설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반대대책위원회는 "성읍민속마을은 1984년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된 마을"이라며 "지정 이후 마을주민들은 역사보존이란 사명감을 갖고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는 등 규제의 법을 지키며 살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제주 성읍마을은 2020년도 세계유네스코 등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연간 내·외국인 관광객이 200만명 이상 다녀가는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의 마을이 됐다"며 "이러한 마을이 양돈단지화로 인해 악취냄새로 관광객이 감소한다면 주민들은 누구에게 항변해야 하느냐. 성읍마을은 끝까지 양돈장 저지 및 단지화를 막는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농업회사법인 A회사가 기존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운영 중인 양돈장의 확장 이전을 위해 신청한 양돈장시설 신규 건축을 지난달 말 돈사·처리시설 밀폐 운영과 악취 저감 시설 적정 운영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태윤기자

독자제보 750-2232

"고양이 등록 하세요" 도, 수수료 면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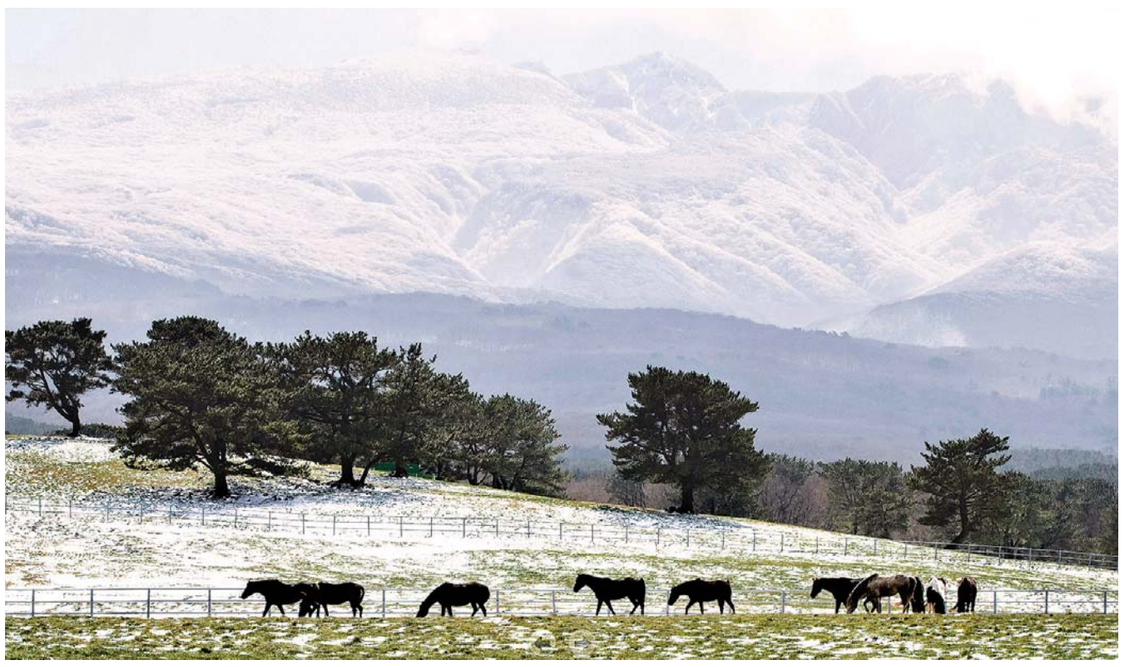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양이 동물등록'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해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해마다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등록 방식은 고양이가 자신의 몸을 자주 핥는 등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외장형 장치가 아닌 내장형 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도민은 동물등록대행업체 52개소(제주시 41개소·서귀포시 11개소)에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고양이 동물등록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동물등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기준 도내 고양이 사육두수는 3만4595마리인 반면 등록은 616마리(제주시 542마리·서귀포시 74마리)에 그치고 있다. 송은범기자



설국 한라산 배경 말들의 휴식 최근 며칠 간 눈 폭탄이 쏟아져 한라산이 눈 세상으로 변한 가운데 18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초지에서 국내산 승용마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대설특보 해제… 진달래밭 이틀새 84.4㎝

눈구름이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눈폭탄을 쏟아 붓고 물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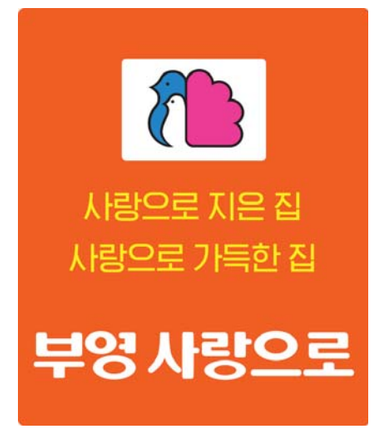
제주지방기상청은 18일 오전 4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내려진 대설특보를 해제했다. 또 이날 낮 12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도 해제했다.

이틀새 제주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 16일부터 18일 오전 7시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84.4㎝의 눈이 쌓인 것을 비롯해 윗세오름 26.3㎝, 어리목 23.9㎝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특히 진달래밭 누적 적설량은 기존에 쌓인 눈까지 더해지면서 1m를 육박했다. 이밖에 서광 5.9㎝, 유수암 5.4㎝, 산천단 4.3㎝, 강정 6.2㎝, 성산 1.9㎝, 표선 1.3㎝의 적설량을 나타냈다.

곳곳에서 피해를 유발했던 강풍도 잦아들면서 18일 오후부터 여객선 운항이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한편 기상청은 19일 제주지역은 오전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3~4℃, 낮 최고기온은 10~12℃로 전망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박 성 길
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고등학교 제14회 동창회
회 장 오 상 욱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득
교육학박사

윤 두 호
(前 교육위원)
교육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 형제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한빛새마을금고 이사장

김 홍 대
한빛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족 일 동

축 CONGRATULATIONS
승 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文 鍾 喆
(시조 49세, 남제공 31세)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평문씨 남제공파 전국종문회 회장 문순정 외 종친일동
남평문씨 칠 머 리 파 종 친 회 회장 문덕열 외 종친일동
남평문씨 휘 원 봉 손 종 친 회 회장 문태준 외 종친일동